

여성 솔로 화사·선미·아이유, MZ세대에 통하는 이유

데뷔 10년 차 혹은 그 이상의 가수라는 공통점
아티스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거나 단독 작사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랑에 대한 태도'·'자존감'

2021년 K팝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이다. 5G 시대만큼 빠르게 새로운 가수가 데뷔하고 컴백한다. 눈 깜짝할 사이 차트의 판도가 뒤바뀐다.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그룹 'SG워너비'의 '타입리스' 등 발매한 지 수년 지난 곡들이 순위권에 진입 혹은 재진입하는 역주행 열풍도 불고 있다.

이런 정글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노래의 흥수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화사와 선미, 아이유다.

화사와 선미는 그룹에서 솔로로 나와 성공했고, 10대에 데뷔한 아이유는 여성 솔로 대표 가수로 인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3명 모두 90년대 생으로 이들은 모두 데뷔 10년 차 혹은 그 이상의 가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룹 '마마무'에서 솔로로 나온 화사는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마리아'로 누적 음원 스트리밍 1억 건을 넘어서며 가온차트의 플래티넘 인증마크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 유튜브의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1억 뷰를 돌파한 이후 근 반년 만의 새 기록이다.

화사 이전 아이유와 선미는 기록을 경신하며 여성 솔로로 안착했다. 아이유의 '팔레트'는 2017년 47주차에, 선미의 '가시나'는 2018년 17주차에 각각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두 곡의 뮤직비디오 역시 각각 2018년 12월, 2019년 6월에 유튜브 1억 뷰를 이뤘다.

걸그룹과 보이그룹 대세속 기죽지 않고 진보한 여성 솔로 3인방의 매력은 무엇일까?

◇ 이들의 가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곡을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가사, 멜로디, 아니면 가수 자체를 향한 애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사가 주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박희아 대중음악평론가는 "가사는 멜로디보다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노래가 중독적인 멜로디를 지녔거나 특별히 머릿속에 남는 후미가 있다 해도, 어떤 가사인지에 따라 그 노래의 설득력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마음을 끄는 노래는 공감할 만한 가사를 품는다. 세 곡은 모두 아티스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거나 단독 작사한 곡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 평론가에 따르면 세 사람은 특히 "자신이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콘셉트가 명확한 아티스트"이며 "그 콘셉트를 가사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즉 가사 속에 이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 MZ세대 여성들의 솔직한 사랑법... '너 그리고 나'

92년생 선미, 93년생 아이유, 95년생 화사. 90년대생인 이들 3명 솔로 가수는 즉 MZ세대 여성이다. 이들의 가사에는 자연스레 MZ세대 여성의 염원이 묻어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랑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이다.

세 사람의 가사 속 화자는 주체적인 사랑을 한다. 감정에 더없이 솔직하다. 선미는 '가시나'에서 "이미 겪은 거잖아. 굳이 미안해하지 마. 정말 께인 건, 지금 내가 아냐. 바로 너야"



라며 식어버린 애정을 한껏 티 내며 돌아선 연인에 톡 쏘는 작별 인사를 건넨다.

아이유는 '블루밍'에서 "뭘해?"라는 두 글자에 '내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라며 필터링 없는 사랑 시를 보냈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했다.

화사는 '멍청이'에서 "내가 멍청이. 너를 병들게 한 까지. 악마의 속삭임, 욕심이 널 밀어내니까"라며 오직 나만을 위해주는 연인을 보듬으며 함께하지 못한 자신이 '멍청이'라고 쿨하게 인정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부터 아껴주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모난 구석까지 끌어안으며,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응원한다.

아이유는 '팔레트'로 자신의 내면 구석구석을 섬세히 살폈다. 그제야 본인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했다. '아이와 나의 바다'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했던 밤들을 지나 끝내 자신의 바다를 찾고, "두 번 다시 모른 척"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화사는 '마리아'를 통해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애뜻한 자신을 위해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자며 손 내밀었다. 'LMM'에서는 "떨어지는 비에도 꽃은 피어나니까"라며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불안 속에서도 결국은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선미는 '블랙 펄'에서 "조금 모나도 이게 나인 것 같아"라며 본연의 자신을 받아들였다. '날라리'를 통해서 "알잖아, 난 Naughty. But 아니에요, 날라리. 맞으면 뭐 어쩔 건데"라며 타인의 시선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되려 뭐라 하는 이에게 한 방을 날렸다.

◇ 동시대의 청춘들과 맞잡은 손...로제-김세정도 솔로 의지

세 사람 외에도 요즘 대개의 MZ세대 여성 솔로들은 퍼포머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진화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는 지난 3월 첫 솔로 데뷔곡 '온 더 그라운드'로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는 내 안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세정은 지난해 앨범 '화분'의 수록곡 '스카이라인'으로 삭막한 도시 속 지쳐가는 이의 "모든 게 더 빛이 나기를" 소망했다. 청하도 2019년 앨범 '스내핑'의 수록곡 '플러시'에서 솔로 데뷔 후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달려온 시간을 고백하고 계속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젊은 여성 솔로들의 이야기가 담긴 곡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그들의 가사가 주목받는 건 곧 그 세대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같은 세대의 청춘에게 희망을 전한다.

박희아 평론가는 "요즘의 K팝 여성팬들은 좀 더 당당해지길 원하고, 자신의 의견을 소리 높여 피력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집단"이라며 "이들은 또래 여성 아티스트들이 가사 속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동화를 느낀다. 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 20~30대가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S윤지, '이프 유 러브 미' 리메이크

'몬스타엑스' 주현 참여

가수 NS윤지와 그룹 '몬스타엑스' 주현이 뭉쳤다.

오는 22일 오후 6시, NS윤지가 '방구석 캐스팅'을 통해 본인의 곡 '이프 유 러브 미(If You Love Me)'를 리메이크 발매한다.

'이프 유 러브 미'는 지난 2012년 발매한 NS윤지의 곡으로, 강렬한 힘과 리듬과 섬세하고 감성적인 피아노 테마가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당시 가수 박재범이 피쳐링에 참여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1 버전 '이프 유 러브 미'는 원곡의 느낌을

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NS윤지의 성숙하고 애절해진 보컬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특히 피쳐링에는 실력과 래피 '몬스타엑스' 주현이 지원 사격에 나서 더욱 파워풀하고 다채로운 래핑으로 곡에 활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NS윤지는 2015년 '꽃썸머' 이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대중을 만나왔다. 그는 "방구석 캐스팅"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어 가장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으며, 팬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해 6년 만에 가수로서의 모습을 선보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리메이크 앨범 발매 소감을 전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억울한 피해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모범택시'는 지난달 9일 첫 방송 당시 시청률 10.7%(닐스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로 출발해 현재 14~15%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2회 방송은 시청률 15.3%를 기록했다. 이제훈을 비롯해 이음, 김의성, 표예진, 차지연, 장혁진, 배우람 등이 출연한다.

오상호 하차→이지현, 잔여 회차 집필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의 작가가 교체됐다.

'모범택시' 측은 17일 "작가와 연출 간에 작품 방향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상호 합의 하에 오상호 작가가 하차하고 이지현 작가가 잔여 회차를 집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택시'는 지난 15일 12회까지 방송됐다. 이지현 작가는 11회부터 집필을 맡았다.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다음달 14일 첫방...캠퍼스판 '미생'

박지훈·강민아·배인혁 출연

KBS 2TV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이 오늘 공개됐다.

오는 6월14일 밤 9시30분 첫 방송되는 새 월화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은 눈부시게 찬란한 청춘들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은 멀리서 보아야 봄인, 가까이서 보면 다른 그들의 청춘 이야기다. 마냥 따뜻하고 낭만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차갑고 고된 '현실 대학생'들을 대변하며 캠퍼스판 '미생'을 그려낼 전망이다.

17일 공개된 티저 영상은 '멀리서 보아야 봄인, 가까이서 보면 다른 그들의 청춘 이야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해 시선을 모은다. 이

후 캐릭터 일러스트와 높은 싱크로율을 빛내는 주연 3인방의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환한 미소를 짓는 박지훈(여준 역)과 무심한 표정의 배인혁(남수현 역),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수줍게 웃는 강민아(김소빈 역)까지 세 사람의 상반된 분위기가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각자의 비밀과 사연을 지닌 청춘 남녀들이 모여 펼쳐갈 아름다운 캠퍼스 로맨스는 어떤 모습인지 기대를 높인다.

극 중 박지훈과 강민아, 배인혁은 각각 명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여준과 김소빈, 남수현 역을 맡아 청춘들의 사랑과 고민 등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여기에 권은빈(왕영란 역), 우다비(공미주 역), 최정우(홍찬기 역) 등 청춘 배우들이 대거 출격해 개성 강한 캐릭터로 열연하며 캠퍼스 내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여출 예정이다.

헤이즈, '해픈' 앨범커버 공개...오는 20일 컴백

20일, 네이버 NOW. 라이브쇼 '#아웃나우(#OUTNOW)'서 '해픈 우연' 무대 최초로 공개

가수 헤이즈(Heize)가 컴백 조모기에 들어갔다.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은 지난 16일 공식 SNS를 통해 헤이즈의 일곱 번째 EP '해픈(HAPPEN)'의 앨범 커버 및 티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앨범 커버 속에는 헤이즈의 깊이 있는 눈빛이 느껴지는 클로즈업 사진이 담겼다. 몽환적인 분위기가 신보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더불어 이날 함께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깃털 장식이 더해진 드레스를 입고 신비로운 아우라를 발산하는 그의 모습이 담겼다. 다양한 각도에서 도회적이고 세련된 무드를 자아냈다.

앞서 공개된 티저에서도 헤이즈는 물방울이 맺힌 유리 너머의 모습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가 하면, 형형색색의 꽃에 둘러싸여 화려하면서도 고독한 분위기를 내뿜는 등 다양한 매력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곱 번째 EP '해픈'은 약 11개월 만의 신



보이자 지난해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합류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앨범이다. 사랑에 관한 다채로운 감정과 이야기를 녹여냈다. 총 8곡이 수록됐다. 오는 20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같은날 오후 8시에는 네이버 NOW. 라이브쇼 '#아웃나우(#OUTNOW)'에서 타이틀곡 '해픈 우연'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